

6/28/26

설교 제목: '네 종류의 땅에 떨어진 씨' 비유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마태복음 13 장 1-23 절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막 4:1-9; 눅 8:4-8)

- 1 그 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 2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 3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 4 뿌릴새 더러는 길 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 5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 6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 7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 8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육십 배, 어떤 것은 삼십 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 9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비유를 설명하시다(막 4:10-20; 눅 8:9-15)

- 10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 11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나니
- 12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 13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 14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 15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 16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 17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 18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 19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 가에 뿌려진 자요
- 20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 21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 22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 23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육십 배, 어떤 것은 삼십 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서는 육친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온 것을 계기로 당신의 진정한 가족이 누구인지 가족 관계를 새롭게 정의하셨습니다.

당신의 진정한 가족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고 하시며 영적인 가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날, 육친의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대신 모인 무리들에게 천국의 비밀에 대해 일곱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본문은 일곱 가지 비유 중 첫 번째 비유로 ‘네 종류의 땅에 떨어지 씨’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앉으시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몰려 들었습니다.

- 1 그 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 2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에서 ‘집’은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자란 나사렛에서 5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으며 육로와 해상 교통이 발달되어 있던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공생애 사역을 하셨습니다.

모인 무리들은 사회적으로 낮고 천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로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 받거나 육체적인 병 또는 약함을 고침 받고자 예수님께 나온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물질이나 일시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구원자로만 이해했지, 인간의 영원과 관련된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로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비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모여드는 무리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 '네 종류의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11 장과 12 장에서 나타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반된 반응에 대해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 3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 4 뿌릴새 더러는 길 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 5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 6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 7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 8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육십 배, 어떤 것은 삼십 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 9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 비유를 가리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들 말하는데, 실제 비유의 초점은 씨 뿌리는 자가 아니라 씨 뿌려진 땅입니다.

이 비유에는 길 가 땅, 돌 밭, 가시 덩굴 그리고 좋은 땅, 이렇게 네 종류의 땅이 나옵니다.

뿌려진 씨들 중 어떤 것은 길 가 곧 밭 두렁 옆에 떨어져 새들이 즉시 먹어 버렸습니다.

또 어떤 것은 돌 밭에 떨어졌는데 돌 밭 흙이 깊지 않아 뿌리를 깊게 내릴 수가 없어 해가 돋자 금방 말라 버렸습니다.

또 어떤 것은 가시 떨기 위에 떨어져 기운이 막혀 자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져 백 배, 육십 배, 삼십 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직설적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묻습니다.

10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11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나니

12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13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천국의 비밀은 하늘 나라에 속한 것으로, 계시자의 도움없이 스스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비밀이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되기 시작했는데, 제자들에게는 그것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무리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이유를 이사야서를 인용함으로써 설명하십니다.

14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15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사 6:9)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사 6:10)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와 완악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야가 그들과 함께 있으나 알아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직접 가르쳐 주지 않고 알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리에 마음을 열고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계시되지만, 예수님과 그분의 메시지에 눈 감고 귀 닫는 사람들에게는 가려질 것입니다.

믿음은 더 많은 지혜로 인도하지만, 불신앙은 더 많은 무지로 인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진리를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믿음을 가진 자는 더 받아서 넘치게 하고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자는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들과 대조하여 제자들이 받은 특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보기 원했던 것들을 보고 듣고 있다고 하십니다.

16 그러나 너희 눈은 붉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17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은 하늘 나라, 천국에 관한 것들을 보고 듣기 원했으나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들을 보고 듣고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비유를 해석해 주십니다.

18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19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 가에 뿌려진 자요

20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21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22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23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육십 배, 어떤 것은 삼십 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씨'는 하나님 말씀을,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과 말씀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 모든 기독교인들을, 그리고 '새'는 사탄, '땅'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첫 번째, '더러는 길 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고'는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인 사탄이 빼앗아 간다는 뜻이라고 하십니다.

길 가 땅은 사람들이 많이 다녀 굳어져 있어 씨가 떨어져도 뿌리를 내리기 힘듭니다.

마음이 완악하여 굳게 닫혀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런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두 번째,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 버리고'는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지만 신앙의 뿌리가 깊지 못해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바로 넘어진다는 뜻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환난과 핍박은 특별히 예수님 말씀 때문에 받는 시련과 고통을 가리킵니다.

신앙이 깊지 못한 사람은 말씀으로 인해 잠시 기뻐하나 환난이 오면 견디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세 번째,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는 것'은 신앙이 뿌리를 내리긴 했지만 에워싸고 있는 가시 곧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빠져 결실하지 못한다는 뜻이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부와 권력이 자신들의 현재와 미래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 놓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결코 인간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네 번째,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육십 배, 어떤 것은 삼십 배의 결실을 하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한 자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뜻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는 철저한 자기 부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그 결과 삼십 배, 육십 배, 백 배,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후에는 제자들이 감당하게 될 사역을 의미합니다.

씨가 결실을 맺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복음 전도 사역이 어리석어 보여 아무런 결실을 거둘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좋은 땅을 통해서 풍성한 결실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천국의 비밀을 알려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것은 씨나 씨 뿌리는 자의 문제가 아니라, 듣는 자 자신의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열려 있는 자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마음이 완악하고 무지한 자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지 않는 책임은 듣는 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알아들을 귀가 있는 사람만 듣게 하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더 받아서 넘치게 하고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자는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기
위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으로 교만하였고 영적으로 무디어져 있었습니다.

마음이 마비되어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가슴이 뛰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려 주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대신 제자들과 같이 진리에 마음이 열려 있는 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알려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 자신의 마음을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져 봅시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완악함으로 굳어진 길 가와 같은 마음은 아닌지요?

은혜는 쉽게 받지만 시련과 환란 앞에서 금방 뿌리가 마르는 돌 밭과 같은 마음은 아닌지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 시드는 가시 떨기와 같은 마음은 아닌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은혜로 기경되어 '좋은 땅'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좋은 땅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부인하고, 겸손히 깨달아 순종하려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풍성한 결실을 거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변하고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우리가 교회가 변하여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삼십 배 육십 배 백 배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를 씨 뿌리는 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땅을 통해 풍성한 수확을 거두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좋은 땅이 되십시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신실하게 씨를 뿌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